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PASTORAL CENTER

주임신부: 안기민 사도요한 510-562-3843

사목회장: 김경년 베드로 오일공-육구삼-공구이공

평협회장: 최대연 다니엘 오일공-이팔돌-이오팔공

선종회장: 채성일 토마스 오일공-오팔구-삼삼일일

2023년 우리공동체 사목방향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공동체

봉사하는 공동체

(백)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

2023년 8월 6일 (제2044호)

사무실: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E-mail: standrewoak@gmail.com

TEL 510-553-9434

홈페이지: WWW.OAKCC.ORG

근무시간: 수(9am~5pm) 목(6pm~9pm) 토/일(9am~5pm)

주일 학교	주일 오전 10시 30분 교육관	
한국 학교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예비자교리	주일 오전 10시 교육관 106호	
신심단체	레지오마리아	주일 오전 9시 30분~10시 30분
	성령기도회	토요일 오전 9시
	향심기도회	월요일 저녁 8시 온라인
성시간	첫 목요일 저녁 미사 후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시 / 11시
	평일 미사	화·목 오후 7시 30분 수·금(대건회관)·토 오전 11시
성사	고해성사	미사 30분 전
	병자성사	사무실/주임신부님 상시 신청
	혼배성사	사무실 신청
유아세례	사무실 상시 신청	
환자봉성체	매월 첫째 주	

제1독서 다니엘 예언서 7,9-10.13-14

화답송 시편 97(96),1-2.5-6.9(◎ 1과 9)

- ◎ 주님은 임금입니다.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
- 주님은 임금입니다. 땅은 즐거워하고, 수많은 섬들도 기뻐하여라.
흰 구름 먹구름 그분을 둘러싸고, 정의와 공정은 그분 어좌의 바탕이라네. ◎
- 주님 앞에서 산들이 밀초처럼 녹아내리네. 주님 앞에서 온 땅이 녹아내리네.
하늘은 그분 의로움을 널리 알리고, 만백성 그분 영광을 우러러보네. ◎
- 주님, 당신은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 모든 신들 위에 아득히 높으시옵니다. ◎

제2독서 베드로 2서 1,16-19

복음환호송 마태 17,5

- ◎ 알렐루야.
-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 17,1-9

영성체송 1요한 3,2 참조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뵈게 되리라.

[성가]	8시	입당 72	봉헌 219	성체 특송	파견 72		
	11시	입당 72	봉헌 211	성체 498, 183	파견 77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	8월 6일(일)		8월 8일(화)	8월 9일(수)	8월 10일(목)	8월 11일(금)	8월 12일(토)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정미경 말가리다	김미숙 말가리다	정미경 말가리다	이명련 파트리샤	황혜정 데레사	채성일 토마스	사목회
독서	정기환 레안텔 이선미 에스더	최윤기 유스티노 황선희 세실리아	정기환 레안텔	윤춘주 세레나	이기자 요안나	박호영 헬레나	사목회
제의방	이선미 에스더	허홍숙 세실리아	이은자 마트로나	윤춘주 세레나	장희숙 루시아	정인경 가브리엘라	허홍숙 세실리아

■ **예비신자 교리 교육**

- 8/13(일)부터 매주 오전 9:40~10:40, 교육관 106호

■ **8월 성시간** - 8월 10일(목) 저녁미사 후

■ **모임 및 회의**

- 구역장회의 : 8/13(일) 오후 12시 30분 교육관 106호
- 사목 회의 : 8/13(일) 오후 1시 30분 교육관 106호
- 알바니: 8/13(일) 오후 3시, 이요한/클라라 덕
- 라스모어/라모린다구역 : 8/13(일) 오후1시 교육관107호
- 콘트라코스타 구역 : 8/20(일) 오후 1시 교육관 107호
- 오클랜드 구역 : 8/20(일) 오후 1시 교육관 106호
- 샌리엔드로 구역 : 8/27(일) 호후 1시 교육관 106호

■ **황금빛인생 일일 행복크루즈여행**

- 날짜 : 9월 5일(화), 4시간, 베이지역 크루즈여행
- 대상 : 70세 이상 어르신
(한쪽 배우자가 70세 미만일 경우에도 신청가능)
- 회비 : 없습니다.
- 점심 : 선상에서 우아하게 합니다.
- 모이는 시간과 장소: 오전 10시 30분까지
2394 Mariner square drive Alameda Ca 94501, 오세요.
- 크루즈여행노선: SF야구장, SF도심스카이라인, 금문교, 엔젤아일랜드, 알카트라즈, 트레저아일랜드, 베이브리지
- 신청마감일: 8월 20일(일) (이후에 신청하시면 가실 수 없습니다.)
- 신청 : 황금빛인생위원 이선미에스터(오일공-구일구-육오육칠) 사목회총무 유인웅다윗(오일공-오파오-칠육삼팔)

■ **공동체 기도 지향**

박영자 마리아, 심연자 데레사, 박영자 클라라, 조상희 마리아, 송정현 헬레나, 신정열 율리엠타, 정연중 비오, 최환준 분도, 최라파엘, 전옥분 크리스티나, 홍윤표 베드로, 황정숙 말찌나, 육승주 아오스딩, 권주선 다니엘, 천혜수아네스, 브루스아론조 발바라

■ **성경 통독**

- 8월 집회서 (읽기분량 : 집회서 44,1 - 48,25)

■ **미사전례복사자 모집**

- 미사전례복사자를 모집합니다. 사무실에 신청해주세요.

■ **이스라엘 성지순례(11월 8일 출발) 모임**

- 일시: 8월 20일(일), 오후 1시, 성당
- 이스라엘 성지순례 설명회 및 성지순례 참여자를 위한 이스라엘 성지 안내

■ **밥나눔 안내**

- 이번주 밥 나눔 없습니다.
- 문의 : 송성숙아네스자매님(오일공-삼칠오- 오일사칠)

■ **한국학교 개강**

- 한국학교 개강은 8월 19일입니다.

■ **평일미사 장소 변경(학교 개학 관계로)**

- 수/금요일 오전 11시 미사는 대건회관 소성당에서 있습니다.

■ **유아세례식을 축하합니다.** 8월 5일에 김강훈/김아영 자녀 김조이 엠마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 **레지오 마리에 아우회**

- 일시 : 8월 6일(일) 교중미사 후
- 장소 : Roberts Regional Recreation Area
10570 Skyline Blvd. Oakland, CA 94611
- 참가대상 : 레지오 단원/협조 단원 및 가족
레지오에 관심있는 모든 분

■ **본당 수입/지출 현황**

* 자세한 내역은 친교실 게시판을 참조해주세요.

■ **안나 요아킴 라인댄싱 교실**

-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 오후 1:00~3:00

■ **안나 요아킴 액세서리 만들기 교실**

- 매월 3째주 토요일 오후 1시 교육관 106호

■ **제27차 북가주 성령대회**

- 8/12(토) 오전 8:30~오후 6:00 본당
- 주차: 당일 본당 봉사자 차량은 대건관 주차장이나 성당 주변에 주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본당 청소 (매주 토 오후 12시)**

- 문의 : 이덕용 대건안드레아(오일공 칠칠삼 사삼팔삼)

■ **빈첸시오회 지역사회 이웃돕기**

- 문의 : 이영길 안드레아(오일공-이구이-오파일오)

■ **오늘 헤어컷 봉사 없습니다.**

☞ **감사합니다.**

- 지난 주 본당에서 봉사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도미니코/도미니카(8/8): 김원조, 강길준, 성동화
- *라우렌시오[로렌조](8/10): 허순구, 유병화, 허수원
- *수산나(8/11): 전문자, 송인숙, 강순배, 유진숙, 양윤경
- *클라라(8/11): 박영자, 이수인, 김순희, 이옥경, 김남경, 권선, 박경림
- *팔로메나(8/11): 부정숙

☞ **성당에 처음 오신 모든 분 환영합니다.**

지 난주, 신앙생활의 기쁨은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그리스도교 삶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결국엔 우리 자신을 위한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나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떡세요?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사실 우리 삶에는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런 병이나 사고도 그렇거니와 사랑하는 이의 죽음, 가족 구성원 간의 불화, 경제적 어려움, 무엇 하나 만족스럽지 않은 현실 등등.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런 일들이 안 생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불쑥 불쑥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통들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면, 우리 삶에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을까요? 이 고통들 앞에서 하느님께서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유학시절, 비행탑승을 기다리고 있을 때, 아이 둘을 데리고 있는 젊은 엄마가 눈에 띄었습니다. 큰 아이는, 한 네댓 살 정도 되었을까요, 혼자서 주위를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고 엄마 옆 유모차에는 이제 갓 돌이 지난 듯한 어린 아기가 누워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어린 아기가 그리 비행을 잘 견딜 수 있을까 싶어 걱정스런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탈만 하니까 데리고 왔겠거니 싶어 더는 생각하지 않았습다. 시간이 되어 비행기는 출발했고, 저는 금세 잠이 들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시끄러운 소리에 잠이 깰습니다. 무슨 일인가 봤더니, 탑승구에서 봤던 그 아기가 뭐가 좋은지 까르륵까르륵 웃으며 노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에 깨긴 했지만 그래도 아이가 잘 노니 다행이다 싶었죠.

그런데, 한 십여 분 정도 더 갔을까요? 기류가 안 좋았는지 갑자기 비행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놀이동산의 청룡열차가 천천히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는 그런 모양새로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어땠겠습니까? 어른인 저도 그런 느낌을 견디는 게 쉽지 않은데, 그 아기는 훨씬 더 힘겨웠을 겁니다. 아기는 금세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어른이라면, 비록 그 느낌이 힘들긴 하더라도, 그 이유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금방 지나가겠지' 하고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죠. 그저 만지고 느끼는 것이 전부인 그 아기에게는 자기 존재 전부가 무너지는 듯한 힘겨운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흔들림이 꽤 오래갔고, 결국 그 아기는 울다 지쳐 울음소리도 못 내고 나중에는 그저 가느다란 신음소리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마음이 참 안 좋았습니다. 아기를 위해서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바라보는 제 마음이 이렇진데,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엄마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께서는 아마도 잘 아실 겁니다. 영문도 모르게, 막 죽을 것처럼 아파 우는 아이를 품에 안고 한밤중에 병원으로 달려가야 했던 경험들이 한 번쯤은 다들 있으셨지요.

그 엄마도 마찬가지로였을 것입니다. 품 안에 안고 있는 아이가 지금 당장 죽을 것처럼 아파하고 있는데, 그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조금 큰 아이여서 말이라도 통해 설명이라도 해줄 수 있었다면 좀 나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갓 돌이 지난 아이에게 무슨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엄마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그저 자기 품의 아이를 끌어안고 그 아이가 지금의 힘든 시간을 잘 버텨내기를, 아프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잘 버텨내기를, 참아내기를 바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느님의 마음도 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도 많은 고통을 겪죠. 힘든 일이 생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느님께 의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픔들, 고통들을 겪게 됩니다. 그 이유, 의미라도 알면 차라리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마저도 알 수 없기에 더 비참하고 고통스럽죠. 그래서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느냐"며 하느님을 원망하고, 눈물을 흘리고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말도 들리지 않고, 어떤 위로도 느껴지지 않고, 하느님마저도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느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왜 고통스러워하는지를 하느님께서서는 다 아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고통의 의미를,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느님 말씀을 알아들을 능력이 우리에게겐 아직 없는 겁니다. 마치 아직 말을 할 줄 모르는 그 갓난아기처럼, 우리 역시도 하느님 말씀을 아직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알려주고 싶으셔도 그 뜻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눈앞에 두고서, 하느님께서서는 그저 우리가 잘 버텨내기만을 바라고 계십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함께 울고 있는 그 엄마의 마음 이상으로, 하느님께서도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잘 버텨내고 이겨내기만을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느님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고통 속에서 나 혼자 아파하고 나 혼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 이 시간이 어서 지나가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버려두고 침묵하시는 하느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한마음으로 울고 계시는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없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이사 49,15)

■ 미사참례인원 / 지난 주 정성

미 사 시 간	8시	11시	총
미사참례인원	50 명	169 명	219 명

주일 헌금		2차 헌금		교무금	Bishop's Appeal	감사 헌금	성소	황금빛 인생	선교	빈첸시오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교무금] 임윤택(7), 김윤택(8), 조진행(8), 유인웅(4-6), 박호영(8), 김관수(7-12), 신기수(7-9), 조용숙(9)							임윤택			유인웅 익명

+ 미사지향

날 짜		지 향	봉 헌 자	날 짜		지 향	봉 헌 자
8/6(일)	연	유춘성 데레사	가족	8/6(일)	생	장민우	송아네스
	연	전안드레아/정시몬	전마리나 /아네스		생	황정숙 말피나	김향진 소피아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생	이영기 마테오	김엘리사벳
	연	주봉진 요셉	주정희 마리아		생	이현경 보나	이에스터
	연	정대업 벤자민	정혜경 데레사		생	이현경 보나	이아네스
	연	김형준 시몬	가족		생	황장규	이아네스
	연	이호순 마리아	이에스터		생	이민규	이아네스
	연	김지성 에드워드	김케넷가족		생	육승주 아오스딩	이영기 마테오
	연	조숙자 바울라	조진행 바실리오		생	실버반	이영기 마테오
	연	박인준 아브라함	박로스가족		생	신제이슨/세실리아 가정	천종욱 다니엘
	연	민정희 클라라	민제노베파	8/8(화)	연	최정자 쟈마	이동재 안토니오
	연	옥제병 요한	민제노베파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연	김마르코	가족		연	박추웅 안드레아	박정연 헬렌
	연	부흥신 마티아	가족		연	박종영 요한	박부기 안나
	연	김옥희 아가다	조모나셀라		생	권글라라	이베로니카
	연	최순일 요셉	강수산나		생	김원조 도밍고	이야고보/카타리나
	연	김정탁 요셉	가족				
	연	김화순 안나	가족	8/9(수)	연	윤천호 바오로	윤세레나
	연	채다니엘	채루카/세레나		연	박종영 요한	박부기 안나
	연	한서연 수산나	김엘리사벳				
	연	한서연 수산나	김찬곤 안드레아	8/10(목)	연	장대식 바오로	장루시아
	연	한서연 수산나	임윤택 루시아		연	박종영 요한	박부기 안나
	연	한서연 수산나	류삼수		연	김관숙 크리스티나	유리디아
	연	John Blain	이영길 안드레아		연	김재성 제이슨	김케넷가족
	연	박추웅 안드레아	박정연 헬렌		연	이호순 마리아	이에스터
	연	박종영 요한	박부기 안나		연	이홍태 알비나	이에스터
	연	김관숙 크리스티나	박덕희 마리아		생	유윤미 리디아	전수산나
	생	조바실리오/모나셀라	전데레사		생	이현경 보나	이에스터
	생	한현자 헬레나	이선영 베로니카		생	송병철 야고보신부님	이에스터
	생	박덕희 마리아	권마가렛		생	전문자 수산나	유리디아
	생	권재복 마가렛	권마가렛		생	이정우	유리디아
	생	권재복 마가렛	박덕희 마리아		생	정한나	유리디아
	생	지민 토마스 권밀러	권마가렛				
	생	임스텔라가정	임윤택 루시아	8/11(금)	연	박종영 요한	박부기 안나
	생	홍리차드 루시아	정분다		생	임은석 글라라	이베로니카
	생	주정희 마리아	익명		생	박영자 글라라	이베로니카

대 건 한 의 원 한의학박사 이준 침·한약·체중조절·통증조절·체질감별 401 Roland Way #225 Oakland (510)444-1010	조미정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및 회계감사 Business Consulting ☎ (925)803-0200 Fax (925)803-0204	광고 문의 성당 사무실 510-553-9434	J & J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와 바디수리 ☎(510)236-0550 강요한	광고 문의 성당 사무실 510-553-9434
---	---	---------------------------------	--	---------------------------------